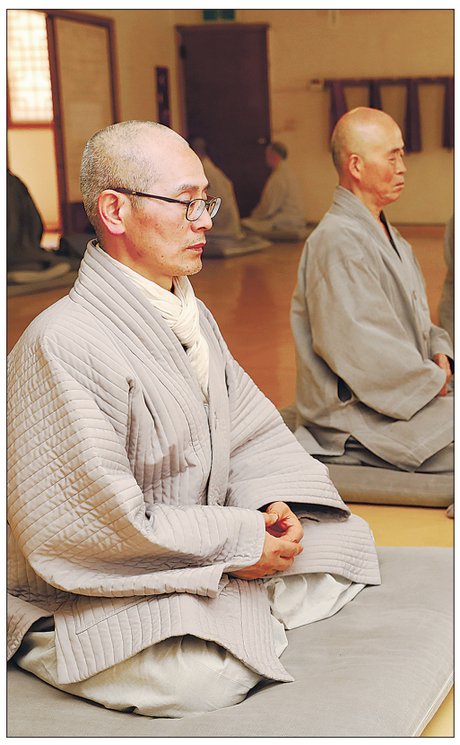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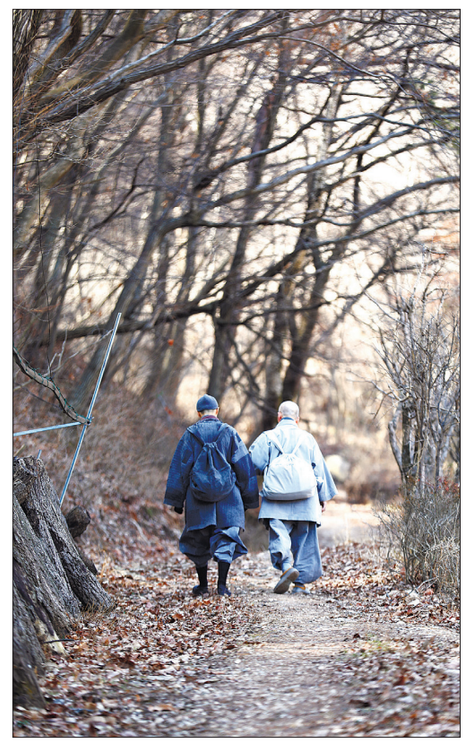
24시간 오로지 화두로 채운 1000일



수좌 스님들이 오등선원에서 화두 삼매에 든 모습.



오등선원 조실 대원 스님이 직접 죽비를 들고 대중을 경책하고 있다. 스님은 천일결사에서 지도 스님의 존재가 정진의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오등선원 대중 스님들이 결사 회향 후 산문을 나서고 있다.

공주 오등선원 1000일 용맹정진 회향 현장

잠 자지 않고 결사 임해
24명 수좌 중 12명 회향
"일념 삼매에 수마 사라져"
1년 용맹정진도 펼칠 예정

공주 학림사 오등선원=김주일 · 노덕현 기자

2017년 2월 26일, 충남 공주 학림사 오등선원에서는 뜻깊은 자리가 열렸다. 조계종 원로의원 대원 스님을 비롯한 24명 수좌 스님들이 1000일간 용맹결사에 오른 것이다. 그동안 조계종에서 봉암사 결사와 같은 3년 결사는 많았지만 잠을 자지 않는 용맹정진 결사는 흔치 않은 일이라 주목을 받았다. 깨달음 성취전 까지 결제와 해제가 따로 있지 않은 말 그대로 용맹정진의 대장정이었다.

그로부터 3년이 흐른 지난 3월 1일 오등선원서는 3년 결사를 회향하는 해제법회가 열렸다. 24명 수좌 스님 중 회향을 무사히 마친 수좌는 절반인 12명. 남은 숫자만 봐도 얼마나 치열했는지 짐작이 갔다. 용맹정진 동참 스님들은 정진 기간 동안 하루 24시간을 오로지 화두 일념 하나로 채웠다. 18시간 대중 좌선 뒤 나머지 시간은 공양과 개인 수행을 했다. 수좌들은 공양을 할 때도, 서서 걷는 행선 때도, 잠시 운력을 할 때도 모두 화두를 들었다. 1000일간 잠을 자지 않는 고행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얼마나 고된 일정이었던지 쓰러져 병원에 실려간 스님도 있었다.

이렇게 쉽지않은 3년 고행을 통해 그들은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까? 해제에 앞서 수좌 스님들의 마지막 정진 현장이 2월 11일 살포시 공개됐다. 적막한 선방서 정진하는 그 모습에서 결연함이 느껴졌다. 불조전등(佛祖傳燈)이 풍전등화 같다는 위기의식서 그 결기는 서릿발 같았다. 해제서 만난 스님들은 형형한 눈빛으로 대중들을 맞았다. "앉아 있는 이 자리서 죽겠다는 각오로 정진에 임했습니다. 코피를 쏟고, 몸이 아파도 끝까지 정진하겠다는 원력 하나로 버텼죠" 3년간 제대로 잠을 자지 않았지만 스님들의 모습은 비교적 건강해 보였다. 가부좌 틀고 앉아 있는 모습이 오히려 누워 있는 일반인들보다 더욱 편해 보였다. 큰 고행을 통해 자신의 몸도 다스릴 줄 아는 지혜와 힘이 생긴 것 같았다.

공주 학림사는 스님들이 수행하는 오등선원 인근에 재가자들이 정진하는 시민선원도 함께 마련해 재가 수행도 독려했다. 3년 결사에서는 6명의 재가자들도 함께 동참했다. 이외에도 30여 재가자들이 출퇴근 하며 정진에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학림사는 1986년 계룡산의 옛 제석사 터에 수행을 위해 대원 큰 스님이 개창한 곳으로, 오등선원은 〈전등록〉 〈광등록〉 〈속등록〉 〈연등회요〉 〈보등록〉 등 5개 어록의 〈오등회원(五燈會元)〉서 이름 붙여졌다. 산철 결제와 상관없이 매일 선풍이 드날리는 선불장으로 마련 된 곳이기에 이번 1000일 결사 회향은 또 다른 결사로 이어진다. 조실 대원 스님은 현재 1년동안 진행되는 용맹 정진을 새롭게 준비중이다.

대원 스님은 "잠 안자는 화두 참구가 7일도 어려운데 3년간 이어온 납자들이 있어 대견하다"며 "이런 구도 열정이 바로 한국불교의 밝은 미래를 대변해 주고 있다"고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인터뷰 **"끝없는 정진속에 시간은 무의미할 뿐"**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대원 스님

천일결사 회향에 대해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대원 스님은 끊임없는 정진을 강조했다. 3년 용맹결사는 과거 봉암사에서 성철 스님과 청담 스님 등이 한 적이 있다. 하지만 3년간 잠을 자지 않고 한 용맹결사는 드문 일이었다. 그동안 학림사에서는 꾸준히 100일간 용맹정진을 11년 동안 진행해 왔으며,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1000일 결사를 회향하게 됐다.

대원 스님은 "오로지 치열한 수행만이 시간으로 인한 우리 인간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며 "그래서 정진은 생로병사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중이 모여 함께 정진하는 만큼 초반에는 어려움도 많았다는 대원 스님은 "여러 사람들이 한데 모여 정진하다보니 성격과 생각이 맞지 않는 일이 있어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 때마다 3년 용맹결사에 임하는 근본 목적을 생각하게 했죠. 어떠한 장애가 생기더라도 꼭 돌파해서 극복해야 된다는 의지들이 강하다 보니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무사히 회향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원 스님은 "자칫 대중들이 다 흩어져서 갈 뻔했는데, 가지 않고 버틴 스님들이 있는 것도 이러한 결연한 의지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있었다. 물리적으로 잠을 자지 않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하는 의문이었다.

대원 스님은 오히려 이에 대해 반박했다. "잠이 쏟아질 때 잠을 안자려고 싸우다 보면 오히려 몸도 지치고 정신적으로 더 피로해져서 잠에 굴복당하고 맙니다. 잠이 올 때 잠이 오는 것을 막으려 하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화두를 놓지 말고 일념으로 참구해가는 것이 중요하죠."

또한 대원 스님은 "지극히 내 몸과 마음을 기울여 꾸준히 전력투구해 참구하다 보면 그 일념으로 수마가 달아나죠. 그리고 1주일이 잠깐 사이에 지나간다. 배가 파도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려면 어렵지만 파도를 타고 가면 쉽듯이 화두 일념이 되면 잠, 망상, 몸의 아픔도 일체가 없고 모든 것이 편안해 진다. 그래서 화두 일념 하면 일체 모든 것을 항복 받을 수 있죠"라고 설명했다. 화두 일념으로 타파는 할 수 있지만 잠에 대한 인간의 한계가 과연 극복 가능할까. 스님은 "생사를 걸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내가 이 자리서 죽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화두에 전력투구하다보면 홀연히 일념이 되는 순간이 옵니다." 화두 일념에도 몸이 힘든 것을 견뎌 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높은 산에 오르는 것은 노력하면 가능하지만, 쉬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아무나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

대원 스님은 "'아이고, 나 죽습니다' 고 한 수좌도 있었죠. 정진하는 스님 중 한 명씩 만나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생사 결판의 지극한 노력서 화두 일념이 되어갔다고들 하더군요. 확실히 깨닫지는 못했더라도 일상 생활, 꿈 속에서라도 화두가 일념이 되어 갈 정도로 공부가 됐다고 한다"며 수좌들의 생각을 전했다.

대원 스님은 수좌 스님들이 정진을 통해 적어도 중생심에 들 떠 있는 마음들은 모두 소진되었다고 봤다. 스님은 또한 "3년 마치고 1년간 용맹정진을 더 할 것"이라며 "나에게 불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며 직접 체험해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백척간두에 나아가듯 생사를 던져보자는 비상한 각오로 결사를 해보자"고 수좌들에게 당부했다.

글 · 사진=노덕현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승려연수과정 수강생 모집

현대인을 위한 생활수행과 포교

일 정 2020년 5월 20일(수) ~ 5월 22일(금), 2박 3일
장 소 경주 황룡원〈점심제공〉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지번) 신평동 150-8)
문 의 031-470-3200, 010-8779-6926
정 원 50명(선착순)
교 육 비 20만원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과학원)
주 관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웹사이트 http://edu.hansi.org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자기 마음 바로 보고 치유하기
▶가정, 사회에서 갈등 지혜롭게 해결하기
▶삶의 의미와 행복 찾기

1일차 (5월 20일 수)	2일차 (5월 21일 목)	3일차 (5월 22일 금)
마음치유와 수행	생활수행의 원리와 사례	의식에 관한 통찰과 마음공부, 그리고 사찰발전을 위한 실제적 적용방안
현대인의 마음공부	현대인을 위한 포교	
	내 마음의 용광로	



재단법인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한마음 공생실천과정 나로부터의 시작

제33기 모집

내 앞에 닥치는 일들을 한마음으로 굴려 놓아 원만하게 풀어나가며, 자신의 근본을 탐구하여 자성을 밝혀 나가는 생활 속 참선수행 프로그램

대 상 마음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
일 정 2020년 3월 28일(토) ~ 5월 30일(토) 총10주
시 간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 6시
장 소 한마음과학원 국제회의실(3층)
모집인원 총50명(선착순 모집)
수 강 료 20만원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 또는 직접 방문 접수 (네이버에서 '함께하는 진화'를 검색)
문 의 031-470-3200, 3201